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려도
- CNBC: 미 중고차 재고 회복되지만 2만불 이하 찾기 힘들어
- Bloomberg: 시카고 연준 총재 “인플레이 하락하면 수차례 금리 인하 가능”

[미국 금융]

- Reuters: 달러, 지난 4개월 하락 후에 완화 가능성
- Bloomberg: BofA, “투자자들 기록적인 회사 자본 지출 경쟁 우려”

[무역전쟁]

- Bloomberg: 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변경 시사

[에너지]

- Bloomberg: 오일가 하락...이란 “미와 핵 회담 건설적”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미 취업 전공 1위는 엔지니어링 아니다
- WSJ : 비행기 엔진을 데이터 센터 전력용 천연가스 터빈으로 활용 중
- WSJ : FedEx, 2029 회계연도 매출 증가 목표 세운다

[미국 경제]

WSJ: The Economy May Have Stuck the Soft Landing. Nobody Wants to Jinx It.

미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려도

- 미 경제가 연착륙 신호를 보인다. 인플레이도 둔화하고 노동 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성장도 건조한 편이다.
- 이른바 핵심 물가도 지난해 1월에 비해 2.5% 상승해 지난 2021년 이래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실업률도 4.3%로 하락했다.
- 그러나 연준 관리들은 물가가 2%를 계속 웃돌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AI 발전과 강한 소비는 ‘경기에는 좋은 신호’로 보이지만
- 물가를 2%까지 끌어내리려는 연준에게는 ‘과열 신호’가 될 수 있다.

기사

CNBC: Used car inventory is improving, but ‘affordable under-\$20,000 vehicles are harder to find,’ expert says

미 중고차 재고 회복되지만 2만불 이하 찾기 힘들어

-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중고차 가격은 작년 1월보다 2% 하락했다.
- 그러나, 한동안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놀랄 수 있다는 점이다.
- 관련 데이터 분석 J.D. Power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8년 이하 중고차의 평균 가격은 3만 202달러로, 2020년의 2만 3,668달러보다 무려 27.6%나 올랐다.

- 중고차 물량 중에 2만불 이하 차량의 비중은 지난 2019년에 53%였으나 지난해는 30%로 줄었다.

기사

Bloomberg: Fed's Goolsbee Sees Several Rate Cuts If Inflation Heads Lower

시카고 연준 총재 “인플레 하락하면 수차례 금리 인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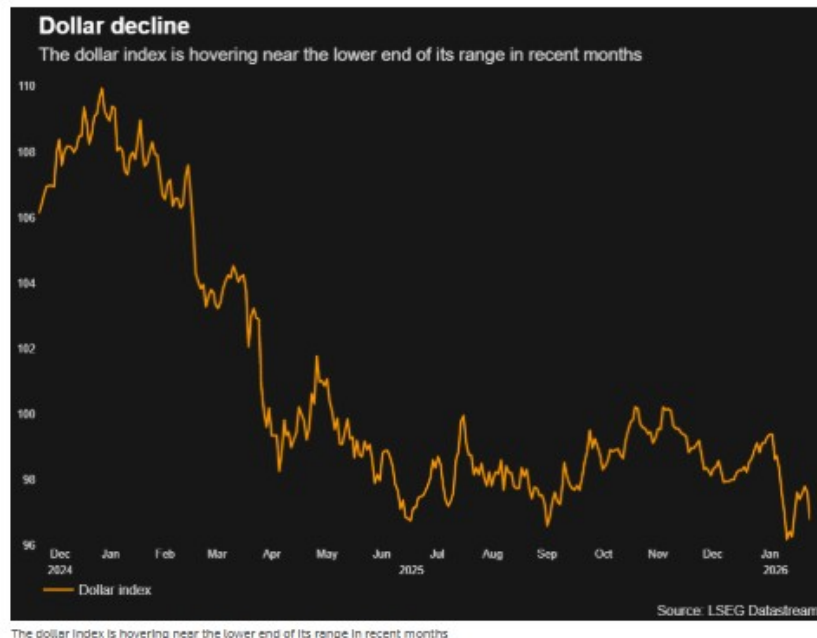
- 시카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인플레가 연준 목표인 2%로 계속 낮아지면 올해 수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요일 밝혔다.
- 물론 그는 서비스 물가가 높다고 경고하면서도 “관세와 연계된 물가가 일회성일 경우 정책 결정자들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 즉, 물가 상승이 단기적이고 물가가 2% 쪽으로 내려온다면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우선 이 같은 현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사

[미국 금융]

Reuters: US dollar may be due for a reprieve after a four-month decline 달러, 지난 4개월 하락 후에 완화 가능성

- 일부 분석가들은 달러가 가까운 시일에 향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미국의 성장세와 향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달러에 하락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연준 의장 지명자 Kevin Warsh는 달러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 이미 시장에 달러 약세가 반영되어 있으며 미 소비 강세가 대미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 유로와 영국 파운드화는 특히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The dollar index is hovering near the lower end of its range in recent months

기사

Bloomberg: BofA Survey Shows Investor Worry Over Capex Race at Record High

BofA, “투자자들 기록적인 회사 자본 지출 경쟁 우려”

- Bank of America의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너무 많다고 발표했다.
-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35%의 응답자들은 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20년전 관련 조사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기술 주식에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 현재 4개의 미국내 가장 큰 기술 회사들이 올해 투자 예상 액수가 6천5백 억달러에 달한다.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US Open to Changing Steel and Aluminum Tariffs, Greer Says

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변경 시사

- 미 무역대표부 미국 무역대표부Jamieson Greer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경제 단체와 교역 상대국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폭넓게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 그는 오늘 화요일 CNBC에서 “기업들을 위해 관세 일부를 준수해야 하는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업들이 관세 기준 준수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로 인해 회사 운영을 힘들게 하는 것이 관세 부과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 소식에 따라 뉴욕에서 알루미늄 관련 기업 주가가 하락했다. Alcoa는 최대 7.9% 하락, Kaiser Aluminum는 최대 4.5% 하락, Century Aluminum는 4.3% 하락 중이다.

- 철강회사들도 하락중인데 Cleveland-Cliffs는 3.1% 하락하며 거래중이다.

기사

[에너지]

Bloomberg: Oil Falls After Iran Calls Nuclear Talks With US Constructive 오일가 하락... 이란 “미와 핵 회담 건설적”

- 미국과 이란의 핵무기 회담 관련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오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벤치마크 가격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
- 이란 외무장관이 양국간의 회담이 진지하고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언한 후 서부 텍사스 중질류는 배럴당 63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 당초에 이날이 군사 훈련을 위해 일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힌 후 가격이 상승하다 최근 하락하고 있다.
- 오일 가격은 공급망 위축,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올해 거의 10% 상승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The 10 most in-demand bachelor's degrees—No. 1 isn't engineering

미 취업 전공 1위는 엔지니어링 아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에 따르면 가장 핫한 학부 전공 순위는 아래와 같다. 특히 아래 퍼센티지는 졸업생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회사들 비율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전공은 금융학.

10. Human Resources: 40%
9. Marketing: 44%
8. Logistics/Supply Chain: 44.7%
7. Information Sciences and Systems: 48%
6. Electrical Engineering: 51.3%
5. Business Administration/Management: 58.7%
4. Accounting: 58.7%
3. Computer Science: 60%
2. Mechanical Engineering: 61.3%
1. Finance: 61.3%

기사

WSJ: How Jet Engines Are Powering Data Centers

비행기 엔진을 데이터 센터 전력용 천연가스 터빈으로 활용 중

- ‘AI 주도 경쟁에서, 경제의 모든 동력이 경쟁에 동원되고 있는데 항공기 엔진도 예외가 아니다.’
- 항공기 엔진 임대 및 수리 회사 FTAI Aviation은 올해 보잉 737에 사용되는 엔진을 개조해 데이터 센터를 운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 투자 은행 Jefferies는 이 사업이 연간 약 7억 5천만 달러의 세전·이자·감가상각 전 이익(EBITDA)을 늘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
- 이와 유사한 개조를 추진하는 다른 기업으로는 사모펀드 지원 기업 ProEnergy가 있으며, 이 회사는 보잉 747에 사용되는 동일 엔진을 기반으로 한 천연가스 터빈을 판매하고 있다. 항공기 스타트업 Boom Supersonic은 지난해 12월 엔진을 개조해 천연가스 터빈으로 판매할 계획을 발표했다.
- 전력 장비 대기업 GE Vernova, Siemens Energy, Mitsubishi Heavy Industries는 이미 이러한 항공기 엔진을 모델로 한 항공 엔진 기반 터빈을 판매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 회사인 GE Aerospace, Howmet Aerospace, Woodward도 육상용 항공 기반 터빈이나 부품을 판매한다.

기사

WSJ: FedEx Targets Higher Revenue in Fiscal 2029

FedEx, 2029 회계연도 매출 증가 목표 세운다

- FedEx는 2029 회계연도 연간 매출을 980억 달러로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연평균 4% 누적성장률(CAGR)에 해당한다.
- 이 회사는 고수익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프리미엄 고객과 특화된 고객층에 집중할 예정이다.
- 이 회사는 2월 11일 기준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3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